

세계질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이승엽·이병규  
불꽃打 시동건다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타자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즈)가 승고르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훈련, 안타행진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센트럴리그는 15일까지 2주 반 동안 리그 6팀이 한 차례씩 돌아가며 맞대결을 마쳤다. 금주부터는 상대팀을 시즌 두 번째로 맞닥뜨리는 셈.

이승엽은 히로시마 도요 카프, 한신 타이거스와, 이병규는 한신, 도요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각각 6연전을 치른다.

15일 야쿠르트전에서 밀어서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포로 시즌 3호 홈런을 신고한 이승엽은 개막전 홈런 이후 1주일, 9일 간격으로 나온 대포 간격을 좁히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할 일은 또 있다. 홈런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승엽이 홈런 레이스를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금주 홈런 7개로 리그 1위를 질주 중인 우즈와 격차를 좁히거나 최소한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안타 16개로 이 부문 리그 10위에 오르며 성공적으로 적응 중인 이병규는 코스에 상관없이 안타를 생산하는 '부채살 타법'을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지난주 한신과 방한 3연전에서 개막전부터 이어온 안타 행진을 마감했던 이병규는 히로시마와 주말 2연전에서 홈런과 안타를 터뜨리며 다시 감을 회복했다. 타율도 0.291이면 수준급이다.

4번 우즈가 폭발적인 타격감으로 싸늘이 타를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5번 이병규가 6번 나카무라 노리히로, 7번 모리노 마사히코로 연결되는 하위 거포 타선에 또 다른 득점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팀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시즌 2패  
서재응 7이닝 4실점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투수 서재응(30·레퍼베이 데블레이스)과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이 나란히 선발 등판했지만 각각 7이닝 4실점, 3이닝 5실점으로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컨트롤 마스터' 서재응은 16일(이하 한국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험프리 메트로돔에서 벌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한 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안타 9개를 맞고 4실점한 뒤 4-4 동점인 8회부터 마운드를 브라이언 스톱스에게 넘겼다.

시즌 세 번째 등판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 서재응은 1패, 평균자책점 7.71을 기록 중이다.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던 로드리고 로페스를 대신해 임시 선발로 나선 볼랜 투수 김병현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벌어진 친정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한 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 등판, 3이닝 동안 홈런 2방 포함 4안타를 맞고 5실점한 뒤 4회 손가락 물집 부상으로 테일러 벅츠로 교체됐다.

팀이 4-6으로 패하면서 김병현은 시즌 2패(1승)를 안았고 대량 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은 10.50으로 치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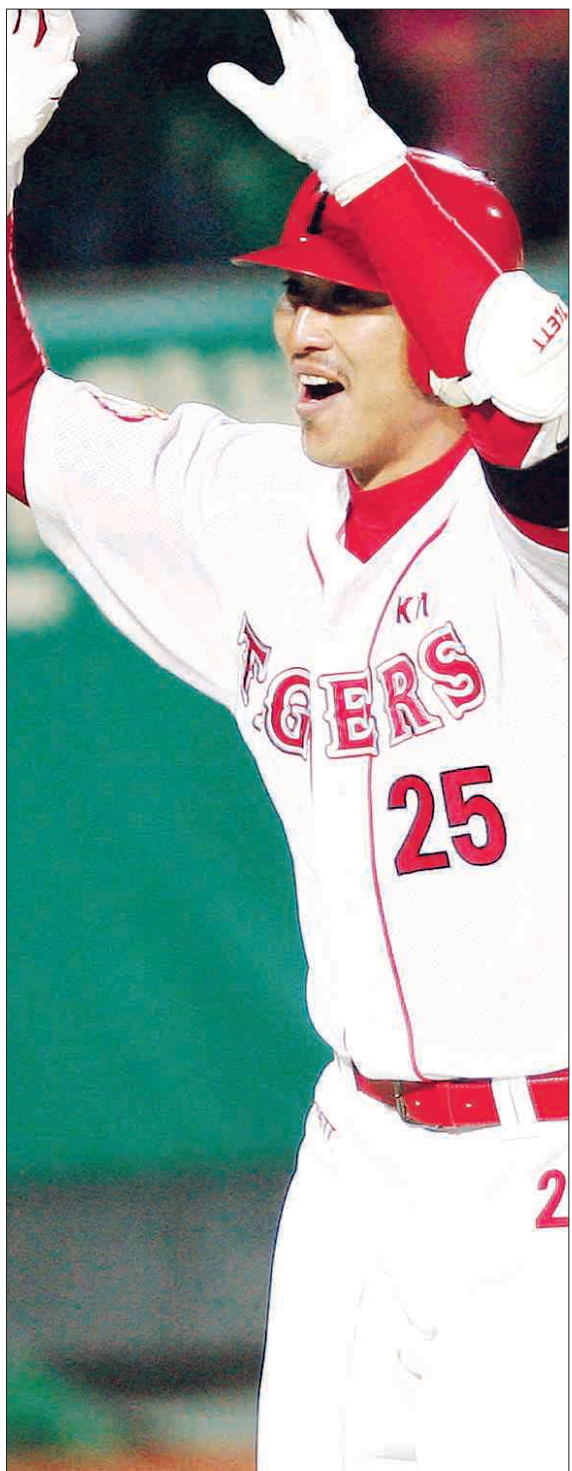
한편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의 추신수(25)는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이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쿠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럼버스 클리퍼스(위싱턴 내셔널스 산하)와 방한경기 더블헤더(연속경기) 1, 2차전에서 각각 2타수 1안타와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금주의 프로야구



<이현곤>



<이재주>



<홍세완>

‘333 트리오’ 일낸다

“선두권 진입은 ‘333’ 트리오가 책임진다.” 지난 주말 안방에서 ‘강적’ 삼성을 맞아 2연승을 질주한 KIA가 4월 셋째주(17~22일), ‘막강 전력’ SK와 ‘약체’ 두산에 상대로 선두권 사냥에 나선다.

KIA는 16일 현재 침체됐던 타선이 되살아나면서 2연승을 챙겨 5승 4패로 5위에 랭크된 상태다. 팀 타율은 0.238로 8개 구단 가운데 꼴찌지만, 서튼-이재주-이현곤-홍세완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의 폭발력을 최강을 자랑한다.

‘타율 0.333’을 나란히 기록중인 홍세완(9안타 7타점)과 이재주(10안타 7타점), 이현곤(9안타 3타점)이 막강 타선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윤석민-이대진-전병두-서튼-양현종으로 이어지는 5선발진과 정원-신용운의 든든한 미들진, ‘특급 마무리’ 한기주의 활약도 눈에 띈다.

특히 시즌 초반 다소 흔들렸던 한기주는 최고 구속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워 3세이브를 올리는 등 안정감을 찾

고 있다.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5	2	2	0.714	-	4승
2	롯데	6	3	0	0.667	0.0	2승
3	L G	5	3	0	0.625	0.5	3승
4	한화	4	3	1	0.571	1.0	2패
5	KIA	5	4	0	0.556	0.0	2승
6	삼성	4	4	1	0.500	1.5	2패
7	현대	2	6	0	0.250	3.5	3패
8	두산	1	7	0	0.125	4.5	6패

선두 SK도 만만찮은 전력을 자랑한다. 4연승을 달리며 1위로 올라선 SK는 팀 방어율에선 3.44(5위)로 다소 떨어지지만, 타격에선 전체 3위(0.258)에 오를 정도로 집중력을 선보이고 있다.

9타점으로 타점 부문 공동 1위에 오른 ‘소년 장사’ 최정(20·SK)의 타격감은 최고 수준이다. 타율 0.324를 기록 중인 최정은 2경기 연속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도루 6개로 1위를 차지한 ‘볼타자’ 김강민(25)은 기동력 있는 SK 야구(팀 도루 1위·22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근우(0.353)와 박정권(0.344) 등의 물오른 방망이도 경계대상이다. SK와의 힘겨운 3연전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SK만 넘어선다면 KIA는 주말(20~22일·광주) ‘꿀찌’ 두산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편안한 3연전을 치르게 된다. 최근 6연패의 늪에 빠진 두산은 팀 방어율(4.22)이 8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로 랜들과 리오스를 제외한 금민철-김명제-이경필 등 선발진이 불안하다.

타선에선 윤재국(0.360)과 홍성흔(0.310)만 제 몫을 해내고 있을 뿐, ‘거포’ 김동주(0.250)와 ‘큰 형’ 안경현(0.167) 등 주력 선수 대부분이 헤매고 있다.

한편 KIA는 17일 인천전 선발로 윤석민(시즌 2패)을, SK는 레이번을 예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실책 급증  
작년보다 43% 늘어

■ KBO 34경기 결과 집계

“실책에 울고 웃는다.” 프로야구 8개 구단이 올해 정규리그 초반 대폭 늘어난 실책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6일 개막 후 15일까지 열린 34경기에서 70개의 실책이 나와 지난 시즌 초반 34경기의 49개보다 42.9%(21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실책은 팀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결정적인 순간 패배의 빌미가 되면서 승부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KIA는 지난 11일 광주 현대전서 4개의 실책을 쏟아내며 1-11로 역전패 했는가 하면 4-6으로 패한 지난 13일 삼성전서도 3개의 수비 실책이 패배의 불씨가 됐다.

팀실책 12개로 3위에 올라있는 KIA는 결과만 놓고 보면 올 시즌 4패 중 2개임을 실책으로 인한 것인 셈이다. 반면 현대와 삼성은

2위 롯데 14개 ‘최다’

KIA 2패 현대도 실책 탓

KIA의 실책수에 힘입어 각각 1승씩을 주워담았다.

‘꿀찌’ 두산도 지난 15일 SK와 경기에서 8-8 동점인 12회 초 좌완 투수 금민철이 2사 후 내야 땅볼을 1루에 악송구하는 등 실책을 13개나 저질러 6연패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6승 3패)도 두 차례나 경기 후반에 수비 실수로 무너지는 등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의 실책으로 불안하다.

특히 올해 잔디와 흙을 새로 깔아 단장한 잠실구장에서 실책이 많았다.

아직 땅이 다져지지 않아 불규칙 바운드가 자주 발생하면서 8경기에서 18개로 경기당 2개 이상의 실책이 선수들의 발목을 잡았다.

또 한 경기당 평균 탈삼진이 12.0개로 지난 시즌 13.7개보다 1.7개 감소하면서 야수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실책이 많아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세리·김주연 공동 6위

LPGA 긴오프 최종

‘새로운 골프여왕’ 로레나 오초야(멕시코)와 ‘돌아온 장타자’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가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브리타니 린시킴(미국)에 우승을 헌납했다. 린시킴은 16일 플로리다주 리유니언의 리유니언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긴오프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한국 남자군단은 역전 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5명이나 ‘톱 10’에 드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김주연(26·KTF·오른쪽)의 재기샷이 반가웠다. 지난 2005년 US여자오프를 제패해 스타덤에 올랐지만 US여자오프 이후 무려 38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한 번도 ‘톱 10’ 입성이 없었던 김주연은 이날 2오버파 74타를 쳐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역전 우승에 도전장을 냈던 박세리(30·CJ·왼쪽)는 버디없이 보기만 4개를 적어내 김주연과 함께 공동 6위에 그쳐 나비스코컵 파인업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 10’에 만족해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선수 전원이 42번?

프로야구 LA다저스의 선수와 코칭스텝 전원이 등번호 42번을 단채 15일(한국시간 16일) 미국 LA에서 열린 샌디에고의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그라운드에 도열해 있다. 42번은 지난 1947년 4월15일 미국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로 데뷔한 LA다저스의 전신 브루클린 다저스 재키 로빈슨의 등번호로 영구결번됐다. 그러나 이날 데뷔 60주년을 맞아 소속팀인 다저스는 전원이 그의 등번호를 다는 등 200명이 넘는 미 프로야구 선수, 매니저, 코치 등이 하루 동안 그의 등번호를 달고 경기에 출전했다.

/AP=연합뉴스